

# 여성 치장문화에 반영된 치유양상에 관한 연구

## - 세계유명디자이너 패션을 중심으로 -

석은경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 요약

패션은 시대를 반영하며 나아가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그 시대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위한 치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디자이너 패션 산업의 성공적 요소 중 하나는 감성과 심리욕구의 충족이며, 이미 20세기 초부터 세계유명디자이너들이 시도한 패션과 심리학의 절충으로 현대 패션은 치유예술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유명디자이너의 패션 미학과 관련한 사고와 그들의 컬렉션을 치유(Healing)의 관점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패션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며, 치유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여성의 패션을 단순히 치장의 측면을 넘어, 시대와 접목된 실증적 학문에 바탕을 둔 치유문화의 절충적 연계 속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주제로서 위치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20세기를 아우르는 유명패션디자이너 6인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조르조 아르마니(Giorgio Arman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랄프 로렌(Ralph Lauren)의 삶과 컬렉션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여, 샤넬의 성, 계층, 연령의 평준화 지향, 크리스찬 디올의 여성성 회복, 조르조 아르마니의 양성의 조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여성 발의 해방, 캘빈 클라인의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억압문화의 탈피, 랄프 로렌의 귀족적 품격의 심리적 만족감 제시 등의 치유 양상을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명패션디자이너의 브랜드에 내재된 미적 특성이 절충과 융합을 통한 인간 삶의 새로운 문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 그리고 디자이너 패션이 단순히 치장의 범주를 넘어 동서이학과 패션문화를 연결하는 폭넓은 소통의 문화로서 역할하여 심리적 치유를 진행하고 있는 현상을 밝혔다.

주제어 : 여성패션문화, 디자이너패션, 치유양상

## I. 서론

치유(Healing)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감정과 정신적·영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차원에서 작용 한다. 따라서 치유는 치료보다 포괄적 의미를 내포 한다 할 수 있다. 패션은 시대를 반영하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함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대를 치유하기도 한다.

20세기 이전 문화적 범주의 유형들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20세기 들어 점차 문화적 범주들에 대한 양면적 감정이 증가하면서 성, 신체적 매력, 연령, 사회계층, 민족성 등이 포함된 모든 부분에서 양면적 감정들이 더욱 역동적인 방식으로 조합되어 상징적 모호성으로 표현되고 있다.<sup>1)</sup> 디자이너 패션브랜드는 여성의 감성문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며,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유명디자이너들은 자신의 패션철학과 패션미학을 통해 심리적 치유로서의 힘을 발휘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의 패션미학을 치유의 관점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이들의 패션이 여성들의 치장문화에 어떤 치유의 양상으로 발현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여성의 패션을 단순한 치장의 측면을 넘어, 시대와 접목된 실증적 학문에 바탕을 둔 심리 의학적 측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명품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미지를 힐링의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활성화시킨 디자이너로 사료되는 유명디자이너 6명을 선정하여 치유 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칼빈 클라인(Calvin Klein), 랄프 로렌(Ralph Lauren) 브랜드디자이너의 삶과 미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패션의 치유 양상으

로 전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선행연구논문, 패션뷰티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였고, 패션뷰티관련 잡지와 뷰티연속간행물, 인터넷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사진자료의 수집은 사진 자료의 수집은 해당디자이너의 작품집, 홈페이지, 컬렉션잡지, 패션전문 연속간행물, 인터넷 정보자료 등의 사진자료를 활용하고 조사하여 취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힐링아트

#### 1) 힐링의 정의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으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의 유형인 ‘웰빙(well-being)’이라는 삶의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웰빙 문화는 인간의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유롭게 사는 삶과 지속 가능한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보보스(bobos)와 슬로푸드(slow food)운동, 다운쉬프트(downshift)족의 삶의 형태를 지향하게 하였다.

따라서 20세기 패션이 꾸미고 치장하는 문화였다면, 21세기 패션은 웰리스(Wellness)와 웰빙이 주요테마가 된 힐링(Healing)의 문화라 정의 할 수 있다.

‘치료(Curing)’와 ‘치유(Healing)’라는 낱말 사이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치료’는 질병을 고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치유’는 감정적·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할 목적으로 심리적·문화적 차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치유는 치료보다 포괄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힐링이란 치유와 치료법을 뜻하는 단어이며, 아트(art)는 예술을 뜻하는 단어로서 패션에서의 힐링은 치유예술(Healing art)을 내포하고 있다.

## 2) 힐링이 적용되는 분야

치유는 건강을 관리하고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구체적인 신체 증상 뿐 아니라 신체, 정신, 영혼의 통합을 강조하는 총체적 접근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대체요법(Alternative), 보완요법(Complementary), 전인요법(Holistic therapy) 등의<sup>2)</sup>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된 패션요법은 아직 의료분야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의사와 협력한 정서적, 심리적 의료행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외모 만족감을 줌으로써 생활에서 자아 존중감을 느끼도록 하여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자의 치료를 거둘 수 있다.<sup>3)</sup>

뷰티관련 산업에서는 에스테틱 마사지 시술에 의한 스트레스 긴장 완화의 효과와 안정감 부여가 있으며, 메이크업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up>4)</sup> 이러한 힐링의 심리 치료 작용은 패션 뷰티 분야를 포함하여 미술이나, 음악, 사진, 요가 등 광범위한 예술분야로 확대되어 오늘날 현대패션과 현대인의 삶에 유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3) 힐링과 패션

오늘날 패션은 단순한 치장의 측면을 넘어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서 패션요법이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패션요법은 패션 요소(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등 패션관련 소품)를 도구로 사용하여 손상된 자기 존중감과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회복시켜 질

병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보조적인 심리치료 방법의 하나로서 외모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증진하여 심리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힐링의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특히 패션은 전쟁이나, 사회적 변화, 문화적 현상을 빠르게 인지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직관과 통찰력으로 패션을 창조하며, 그것은 뛰어나 시의성을 발휘하면서 패션의 치유적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유명패션 디자이너의 패션 철학을 힐링의 관점으로 접근해 봄으로서 패션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며, 치유와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지 디자이너의 미적특성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I. 디자이너 패션의 미적특성과 치유양상

디자이너 패션을 논할 때 제기되는 패션디자이너의 삶과 패션 스타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 패션의 특성은 디자이너의 내면세계의 표현이며 디자이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sup>6)</sup>

### 1. 가브리엘 샤넬 패션과 치유 양상

#### 1) 가브리엘 샤넬의 삶

샤넬 패션의 성립 배경은 1차 세계 대전으로 여성이 남성 대신 후방을 지킴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신여성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으며<sup>7)</sup>, 바우 하우스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기능주의 조형 운동의 문화적 현상과도 연계되어진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양상은 스포츠의 확산과 여성해방운동의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것으로 샤넬 패션의 유행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시절을 보낸 샤넬은 그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의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재봉사 생활도 했으며, 카페 가수로서의 실패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샤넬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아 이러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당시 사회의 모든 굴욕의 고통을 치르면서 상류 사회에 출입하게 된다.<sup>8)</sup> 샤넬패션의 미적 특성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딛고, 억압받은 처장의 문화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패션에 반영된 미적 특성으로 정리된다.

### 2) 샤넬 패션의 미적 특성

여성적인 속성을 제거한 **sexless, bosomless, hipless**와<sup>9)</sup> 같은 관형(**tubular**) 실루엣으로 대표되는 샤넬패션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 여성상의 표현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복의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여자다움의 개념상의 전면적인 혁명으로 성적 해방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10)</sup>

남녀가 서로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복과 같은 활동하기 편리한 기능성과 단순함이 있어야 함을 인지했던 샤넬은, 기존의 여성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강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녀의 미적 철학을 여성 패션에 주입시켰다. 또한 가난을 이해 할 수 있게 한 그녀의 성장 배경에서 우아함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시키는 복식인 푸어 룩(**poor look**)을 창안하게 하였다. 샤넬의 패션은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단순함과 실용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패션의 과시적이고 화려한 옷차림으로부터 해방시켜 나이든 여성들도 보다 젊어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것은 기능주의 시대와 맞물려 시대가 원하는 패션스타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성의 심리적 자신감을 통한 치유예술로서의 힘을 발휘하였다고

사료된다.

### 3) 샤넬 패션과 힐링

(1) 신체 기형으로부터의 완화와 심리적 만족감  
샤넬스타일은 기능주의의 키워드인 실용을 패션에 적용하고, 여권신장을 통한 사회 진출기의 여성복에서 코르셋을 제거함으로써 패션계에 새로운 혁명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 신체의 기혹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한 샤넬은 코르셋으로부터 탈피된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을 창안해 냄으로써 왜곡된 신체 기형으로부터 치유예술을 실천하였던 현대 패션의 선두주자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코르셋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부활과 퇴장을 거듭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조율하고 통제하고 장식해온 장치로서<sup>11)</sup>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이루는데 필수 요소였으며, 16세기 말경에 앙리2세의 왕비는 이상적인 허리의 치수를 13인치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2)</sup> <그림 1>과 <그림 2>처럼 몸을 줄라매는 코르셋은 생체 해부학적 퇴행과 변형된 신체 기형을 초래하였는데, 40년간 관찰 평균치에 의하면 코르셋을 착용한 젊은 여성 100 중 25명은 폐병으로 사망, 15명은 첫 출산 후 사망, 15명은 첫 출산 후 몸이 허약해지고 35명만 견뎌 냈으나 머지않아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기술한 바 있다.<sup>13)</sup> 1900년대 유행의 절정을 이룬 코르셋은 장



<그림 1>  
코르셋과 기형적 허리  
(출처: 『서양복식사』,  
2004, p.347)



<그림 2>  
코르셋 조이기  
(출처: <http://movie.naver.com>)

기간 착용하는 경우 신체는 독특한 S자형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척추 만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으며<sup>14)</sup>, 폐결핵과 혈류장애, 호흡 곤란으로 인한 잦은 기질, 유산, 히스테리 등이 발생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신체가 혹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시장에서 젊은 처녀의 인체에 높은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코르셋 착용은<sup>15)</sup> 아름다운 신체를 만드는 매개체로서 유행되어 입혀졌다. 또한, 19세기 말에는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하여 맨 아래 있는 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이 성행되기도 하는 등 원하는 몸을 위해 신체의 건강은 무시되었다.<sup>16)</sup> 패션의 역사에 있어서 가부장제 시대상에는 여성 신체를 극도로 억압하는 순용적 신체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된 전형적인 공간과 활동들이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몸을 구축하고 재창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남성권력이 신체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가진 역사적 효과를 이해하고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sup>17)</sup> 서양의 코르셋과 중국의 전족은 여성 결혼의 높은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도덕적 정숙을 강요받았으며, 남성들의 성욕을 통해 여성의 성적 특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sup>18)</sup> 20세기 초 샤넬이 유행시킨 <그림 3>의 가르송느 룩(garçonne look)은 직선적인 실루엣에 단순함과 실용적인 특성을 가미함으로써 1920년대 여성들로 하여금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여성 치장의 문화에서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으며 전쟁이라는 사회 문화적 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시대의 여성스타일을 제시하는 신화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하여 후방을 지키게 됨으로서 사회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들은 보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끈으로 꼭



<그림 3>  
가르송느 룩, 1920년대 젊은 여성  
(출처: 『20세기 패션』, 2003, p.68.)

조여진 당시의 코르셋은 활동에 제약을 주었으므로 샤넬의 스포츠웨어 개발은 여성들의 긴 산책이나 운동을 수월하게 해주었다.<sup>19)</sup> 샤넬 패션은 코르셋의 패션 현상에 의해 여성 신체의 왜곡된 변형에서 미적 기증을 찾으려 했던 신체 기형을 치유하려는 힘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했다고 사료된다.

## (2) 심리적 대리만족

샤넬은 자신의 패션에 나타난 세 가지 미적 특징인 성·연령·계층의 평준화를 통해 여성의 패션 문화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서 여성의 마음에 심리적 치유를 펼쳐 나갔다. 샤넬은 여성복식에 남성적인 힘을 가미함으로써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순응하는 여성 패션에 남성적 힘을 공유하는 대리 만족의 심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그녀는 저지로 만든 수트를 발표하여 패션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서 상류층 전체의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반격을 가한 셈이며, 부의 노골적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그녀의 패션은<sup>20)</sup>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심리적 자존감을 부여한 심리적 치유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짧은 치마와 짧게 자른 머리를 유행시킴으로서 젊음과 발랄함의 추구를 통한 여성들의 패션에 연

령의 평균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젊음의 에너지를 패션 예술로 승화시켰다.

국민일보(21)에 의하면, 의상을 통해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손상된 자기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를 회복시켜 주는 보조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상인들도 즐겨 입는 옷과 메이크업을 보면 그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벨 패션은 시대의 아픔과 병폐를 보여주는 여성성 상징의 해방과 함께 성·연령·계층의 양면가치를 패션에 제시함으로써, 20세기 여성의 독립된 삶의 표현을 심리적 치유로 패션화 하였다고 사료된다.

## 2. 크리스찬 디올 패션과 치유 양상

### 1) 크리스찬 디올의 삶과 패션

유복한 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디올은 항상 우아함으로 치장된 어머니로부터 여성미의 기준을 확립했으며, 이것은 그의 패션미학의 전통성을 정립시키는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었다.

외교관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건축과 예술에 많은 흥미를 가졌던 디올은 세계적인 경제공황기와 만나면서 집안이 파산되고 어머니와 형의 죽음을 겪는 슬픔을 맞는다. 그 후 디올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 모자와 드레스 디자인 크로키를 팔았고, 디자이너로써 의상실에서 근무하며 영화의상을 디자인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가 패션의 환상적인 세계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크리스찬 디올 패션의 미적 특성

크리스찬 디올 패션은 전쟁이라는 패션과 단절된 시기 직 후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경으로 찾아왔으며, 과거 아름다운 시절의 우아하고 귀족적이며 여성의 인체미를 부각시키는 뉴욕을

통해 여성성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기능주의 패션에 의해 자유로워진 허리선에 콜셋을 다시 착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여성을 유혹하는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디올의 뉴 룩(New Look)은 작고 완만한 어깨, 맵시 있게 도드라진 가슴선, 가늘게 짝 조인 한 뺨의 허리, 바스크(basques)에 의해 가볍게 넣은 패드가 넣어진 둥근 곡선으로 된 힙 부분과 풍성하게 펼쳐진 스커트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관능미는 코르셋과 패드에 의해 표현되어 나타났다. 철저히 폐쇄된 보수적 성향의 복식은 힘든 억압된 신체를 탐닉하는 에로틱한 느낌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정숙미와 정부들의 여성성을 극도로 표현해 내었다고 사료된다.

### 3) 크리스찬 디올 패션과 힐링

제2차 세계 대전은 참혹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였고, 물자부족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아끼고 절약하는 풍조로 이어져 <그림 4>에서 보여 지는 의복스타일의 축소화(utility cloth)와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을 유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현상은 여성 패션의 전체 스타일을 직선적이고 기능적이며 활동적으로 만들었으나, 꾸미고 치장하려는 여성의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디올 패션이 추구한 라인의 미학은 이 시대 여성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켰다. 이것은 여성의 패션이 삶의 방식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 영향력을 부여하는가의 결과를 입증해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패션이 사회 문화적 현상을 대변하는 표현임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결과물이라는 그의 신념은 ‘뉴 룩’이라는 패션으로 자신의 열정을 표출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불안했던 여성들의 마음에 과거 화려했던 패션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동경을 안겨 주



<그림 4>  
밀리터리 룩재금석,  
『세계패션의 흐름』, (2003),  
p.92.



<그림 5>  
뉴 룩 (출처: 『Icons of  
fashion』, 1999, p.110)

었다. 샤넬이 싸구려 저지에 단순성을 가미하여 여성정장을 남성적 스타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다음은 화려한 귀족적 여성성을 강조한 비싸고 많은 양의 천으로 이 시대 여성들이 갈망하는 여성미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시켰다.

다음은 전쟁으로부터 이어져온 밀리터리 패션을 거부하고 훨씬 이전의 과거 전통 패션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라인의 미학을 통해 전후 패션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음 패션은 전쟁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규제 당했던 꾸미고 치장하려는 여성의 욕망을 뉴욕 <그림 5>이라는 패션으로 분출시킴으로서, 여성패션에 심리적 만족감이라는 강력한 치유 패션의 효능을 발휘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 3.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과 치유 양상

#### 1)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삶과 패션

아르마니는 무솔리니의 독재가 절정에 달하던 1934년 7월 11일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태어났다.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의 꿈을 키우던 아르마니는 군 생활 중 자신의 직업이 의학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낀 후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운명처럼 패션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학창시절 여학생들

에게 옷 입는 법과 머리 모양 만드는 법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sup>22)</sup>아끼지 않았던 아르마니의 잠재된 미의식은 토탈 패션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전부터 스타일리스트로서 앞서 나가는 리더의 역량을 보였다. 그의 패션은 기능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을 단순함으로 정립시켰으며, 장식성을 배제한 패션 스타일은 여성복에 조용한 혁명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미적특성을 다음과 같이 돌출해 내고 있다.

#### 2)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의 미적 특성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미의식은 절제된 세련됨으로 시작된 단순미라 정의 할 수 있다. 합리주의의 전통과 영향이 현대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탈리아는 미적 창조성과 기술을 결합한 기능적인 미학을 반영하며 현대의 복잡하고 대중화된 사회의 과장된 형태와 화려함에 대한 싫증과 반발로 단순미와 절제미를 추구하고 있다.<sup>23)</sup> 또한 신비스러운 색감과 함께 허리와 가슴에 피트 되는 재킷은 자연스러운 지성미를 돋보이게 하는 아르마니 특유의 스타일로서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모던함이 가미되어 결코 인위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다.<sup>24)</sup>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아르마니는 딱딱한 어깨의 패드를 해체함으로써 전형적인 재킷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기능적인 양성미는 아르마니의 주요 디자인의 요소로서 인체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신념으로 느슨한 실루엣을 통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였다.<sup>25)</sup> 이와 같이 아르마니의 디자인은 신체적 매력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간결하며, 기능적인 여성복을 디자인함으로써 샤넬 이후 패션에 위대한 영향력을 갖는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으며<sup>26)</sup>, 이것은 프랑스 샤넬 패션이 추구했던 모더니즘 미학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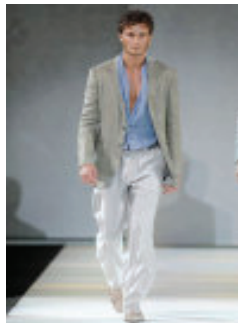
### 3)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과 치유양상

오늘날 패션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양분법적 고정관념은 파괴되고 있으며 복식에 의해 표현되어졌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sup>27)</sup>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마음속의 혼이나 뉘, 심령처럼 독자적 인격이라 하는 무의식의 인격을 보았는데, 남성의 무의식의 내적 인격은 여성적 속성을, 여성의 무의식의 내적 인격은 남성적인 속성을 띠게 됨으로서 남성이 여성에 관해, 여성이 남성에 관해 체험한 모든 침전을 의미하며 전자는 아니마(anima), 후자는 아니무스(animus)라 하였다.<sup>28)</sup> 따라서 이러한 인간 무의식 속의 유형인 양성성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성의 적절한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남성적 및 여성적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으며<sup>29)</sup> 건강한 정신과 환경 적응력을 높인다. <그림 6>, <그림 7>처럼 아르마니 패션이 지향한 이러한 양성성의 경향은 남성에게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아니마를 자극시킴으로서 오랜 동안 남성 패션의 경직된 스타일을 제거함과 동시에, 남성의 속성 안에 잠재해 있는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르마니는 접착성

을 제거하고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소재로 1970년대 딱딱한 의상을 부드럽게 재구성하였으며 아르마니의 재킷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했다.<sup>30)</sup> 인체의 자유로움을 통한 세련된 양성성을 표현한 그의 디자인 감각은 리차드 기어가 착용한 패션 광고를 통해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18C 말과 19C 초기에 권력을 가진 남성은 수수하고 유사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집단적 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전까지의 화려한 남성 패션은 패션의 역사 속에서 물러난 듯 보였다.<sup>31)</sup> 하지만 재킷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시킨 디자인의 컨셉을 출발점으로 한 아르마니 패션은 1984년 컬렉션에서 여성적으로 변형된 남성스타일의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을 그의 컬렉션에 등장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아르마니의 전성기를 만들기 시작했다.<sup>32)</sup> 남성복으로 시작한 그의 패션은 패드 없는 부드러운 재킷, 헐렁한 팬츠, 피트 되는 니트웨어 등을 통해 남성 패션에 여성적인 속성을 가미시켰다. 또한 아르마니는 여성복식의 고정 관념을 전환시켜 남성 테일러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남성의 편안함과 합리성을 적용시켰다.<sup>33)</sup> 이처럼 아르마니는 유니폼 같은 남성 패션에서 더 자유스러운 남성복을, 여성복은 전통적인 것에서 더 센스 있게 디자인함으로써<sup>34)</sup> 기존의 성 개념을 무시하고 남성복에는 좀 더 여성적인 것을 여성복에는 좀 더 남성적인 요소를 디자인하였다. 아르마니 패션이 지향한 양성성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통해 성을 초월한 자유로운 개성 표현이라는 패션의 심리적 치유와 연관되어 있으며, 웰빙이 지향하는 조화와 균형의 의미와도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6>  
2009 F/W, Giorgio Armani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2009 F/W, Giorgio Armani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4. 살바토레 페라가모 패션과 치유양상

#### 1)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삶과 패션

이탈리아 패션의 명성을 세계에 각인시킨 페라



가모는 가난한 집안의 14명의 자녀 중 11번째로 보니토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구두쟁이가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던 이탈리아에서 페라가모의 부모는 그가 구두장이가 되길 원하지 않았으나, 구두에 대한 살바토레의 천부적인 소질과 관심은 그를 구두 견습공의 삶으로만이 아닌 세계를 지배하는 명품브랜드의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하였다.

16세 때 미국 할리우드근처에 구두점을 운영했던 페라가모는 당시 유명 배우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페라가모의 구두 패션은 산업 혁명을 통해 부를 쌓아온 미국 상류층의 욕구에 부합되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런 디자인은 할리우드 영화배우들과 원저 공작부인, 사교계의 인사 등 패션 감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과학적이었다.

## 2) 페라가모 구두패션의 미적 특성

페라가모가 가졌던 구두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구두 기술자로서의 성공이 아닌 패션 예술로서의 자질이였다. 그의 예술적 기능미는 착용감 좋은 구두의 창안에서 시작된다. 제대로 된 신발의 착용을 통하여 발을 혹사시키지 않게 하려는 끊임없는 연구는 구두 속의 발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걸을 때 발이 앞으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바닥에 장심을 박아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sup>35)</sup> 또한 페라가모 패션의 미적 특성은 독특한 로고인 바라(Vara)와 간치니(Gancini)를 통한 품격 있는 세련미를 구현하며 나타났다. 자물쇠에서 유래한 조개 혹은 두 개의 말발굽 모양의 간치니는 페라가모 브랜드만의 독특한 미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로고로서 품격 있는 세련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발로부터 시작된 페라가모의 패션 미학은 오늘날 향장품, 향수까지도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럭셔리 컴퍼니로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

드의 입지를 견고히 잡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여성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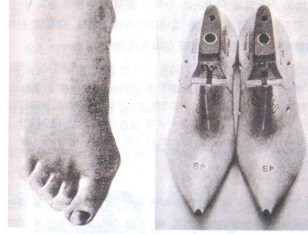
## 3) 페라가모 패션과 힐링

성적 상징의 매개체로서 하이힐은 거의 예외 없이, 여성 성기를 대신하는 상징이 되어 왔으며 여성의 각선미와 맵시를 돋보이게 하는 심리 치유의 역할을 하여왔다. 하이힐은 여성의 뇌수에 자극을 주며, <그림 8>, <그림 9>처럼 무지외반증, 하지정맥류와 척추측만증, 디스크, 임신율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작은 발에 대한 열정은 지난 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치열해서 유행을 좇는 일부 숙녀들은 점점 뽀족해지는 구두에 발을 넣을 때, 좀 더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새끼발가락을 잘라 내었다고 한다.<sup>36)</sup> 따라서 오늘날 발의 억압은 중국 전족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다시금 여성 하이힐로 전이되는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미끼로 하여 여성들에게 수난을 주는 하이힐은 1920년대부터 높은 뒤 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혹적인 여성화의 패션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형틀의 치장의 문화가 되었다.<sup>37)</sup> 하이힐은 신체 일부로 인식됨으로서 불편함에 대한 익숙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착용하지 않고 타인을 대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타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상황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sup>38)</sup> 여성들이 신체적 고통과 피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치장하려고하는 본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패션문화 현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구두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가진 페라가모는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전공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극도로 편안함을 가미한 구두 패션의 미학을 확립하였다. 그는 발가락의 움직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



<그림 8>  
전족과 발의 기형  
(출처: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2000, p.234)



<그림 9>  
구두와 발의 기형  
(출처: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2000, p.236)



<그림 10>  
페라가모 구두2  
(출처: 『Icons of fashion』,  
1999, p.79)

해서 구두 바닥에 장심을 박았으며, 걸을 때 발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구두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자 코르크 등 값싼 재료를 활용하거나 조각난 스웨이드를 이은 패치워크 작품을 창안해내는 독창적 작품을 창조하였다. 부단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1940년대 크게 유행하였던 ‘정형외과적 웨지 힐(wedge heel)’의 고안은 구두 패션의 독특한 아이디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웨지 힐은 앞굽과 뒷굽이 이어져 있는 힐의 형태로서 안정적이며, 발의 힘이 앞으로 쏠리는 하이힐 보다 발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 장점이다. 페라가모는 웨지힐<그림 10>의 창안을 통해 여성의 발에 편안한 착화감을 주었으며, 동시에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만족시킴으로서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페라가모의 구두 패션은 발의 억압적 구속으로부터의 치유와 미의 심리적 욕구로부터의 만족을 조화롭게 연출한 구두 패션의 과학을 치유예술로 디자인 하였다고 사료된다.

## 5. 켈빈 클라인 패션의 미적 특성과 치유양상

### 1) 켈빈 클라인 삶과 패션

미국 패션의 미니멀리즘을 실현한 켈빈 클라인은 1942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

장 환경인 도심의 빌딩, 자동차, 아스팔트 등의 도시는 모던한 그의 패션 감각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 하였다. 프랑스 파리가 최신 유행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미국 뉴욕 패션은 현실적인 패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현대적이고 단순한 이미지로 세계 패션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클라인과 같은 미니멀리즘의 간결한 미학을 현대인의 코드에 부합시킨 디자이너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하는 여성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옷의 부피는 크지 않고, 움직임이 쉽고 편리하길 원한다.<sup>39)</sup> 극도로 장식을 배제한 단순함 속에서 절제된 우아함을 발휘하는 그의 패션은 자유로운 세련미의 극치를 보이고 있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그의 통찰력은 197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가장 폭 넓은 고객층에게<sup>40)</sup> 뉴욕스타일의 전통적 이미지인 기능미와 실용미를 각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의 패션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켈빈 클라인 광고패션의 미적 특성

아메리칸 스타일의 전통적 특징인 단순함(simplicity), 편안함(comfort), 여유(easy), 개성(individuality) 등의 특징으로 집약된 켈빈 클라인의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는 대중적이며,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여성의 기호에 부합되었다.<sup>41)</sup> 스포츠웨어의 발달

은 남성 또한 여성의 패션으로 전위되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세속적 구분법을 바꾸어 놓았으며 양성의 옷은 소비 사회의 특징인 대중적인 행복에 맞추고 있음을 통찰하였던 것이다.<sup>42)</sup> 켈빈 클라인이 패션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광고 표현의 고정관념 파괴이다. 그의 파괴적이며 도발적 관능미의 표현은 알몸을 보여 주고, 섹스와 동성애를 논쟁의 주류 속으로 끌어 들였다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장벽을 깨뜨린 반란자였다<sup>43)</sup>고 패션업계는 말한다. 디자이너 청바지의 열광을 주도했던 그는 예리하게 드러내 놓은 다리의 실루엣이 상황에 따라 관능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독창적인 광고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정적인 이미지로 전락화한 광고들은 사회적 논란의 쟁점이 되었으나, 사람들의 호기심은 타 브랜드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고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켈빈 클라인은 인간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등의 기존 사회적 규범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관능미는 금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기를 초월 한다는 예술과 패션의 완성된 미의 형태를 이끌어 내었다.

### 3) 켈빈 클라인 패션과 힐링

켈빈 클라인 패션의 힘은 곧 광고다. 「타임」지는 클라인을 일컬어 ‘에로틱 광고’의 선두주자라고 칭했으며, 그는 양성애는 물론 인습을 과감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TV광고를 제작함으로써 관음증과 노출증에 근거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sup>44)</sup> 그는 섹슈얼리티와 패션의 사회적 역할 간의 관계에 새로운 충격을 가함과 동시에 미국의 청교도적 정신에 도전장을 던지고, 섹슈얼리티 미학을 대중 속에 전파함으로써 20세기 후반의 발화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끄집어내었다. 시각적인 인상은 리비도적인 흥분이 가장 빈번하게 불리일으키는 경로로써<sup>45)</sup>, 시각적인 형상을 통한 성의 내재된 욕구의 발화는 육체적 욕구의 만족과 밀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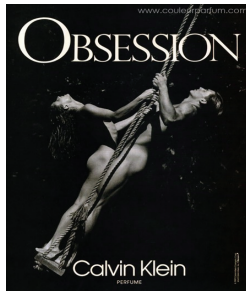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나체에 대한 수줍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학습된 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현대 문화권에서는 신체를 의복으로 가림으로써 성욕을 느끼게 하고 있다.<sup>46)</sup> 프로이드는 성욕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는 ‘보고자 하는 욕구’로서 상대의 성적 특징이 있는 독특한 기관을 보려고 하는 욕망은 남녀 모두에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sup>47)</sup> 과시욕의 억압된 형태로 나타나는 ‘관찰’로 탈바꿈한 관음성은 남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르시시즘과 연관되어온 여성의 노출 패션은 오랜 세월 보이고자 하는 욕구인 노출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sup>48)</sup> 따라서 남성 주체는 시선을 주는 상상의 근원이고 여성 주체는 시선을 받는 상상의 근원이다.<sup>49)</sup>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각자 심리적 도착 증세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sup>50)</sup>,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규제 하에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있다. 클라인의 광고는 이러한 관음증과 노출증 시선을 섹스어필한 광고를 통해 세계 곳곳의 논쟁의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며, 구매력 유도를 위한 은밀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다. 켈빈 클라인은 당시 15세의 소녀 브룩 실즈(Brooke Shields)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세계 젊은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광고에서 브룩 실즈는 “나와 켈빈 클라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sup>51)</sup>라는 말을 던진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셔츠의 단추를 잠그는 것인지 푸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모습을 취한다. 일부 보수적인 지역의 방송국들은 그 광고를 중단시키기도 했으나 광고가 방송을 타고 나간 지 얼마 후 미국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으며, 청바지는 놀랄만한 매출성파를 올리게 하였다. 이 광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커질수록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클라인 진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만 갔다. 의식 세계에서 가지는 에로틱한 성적 환상은 무의식에

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성적 환상이 마치 꿈 작업과 마찬가지로 위장되어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sup>52)</sup>

<그림 11>, <그림 12>처럼 클라인은 자신의 나르시시즘의 패션 세계를 통해 감춰진 인간의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사회적 규범과 은폐된 의식 속에서 시각적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도덕적 규제로 억압받은 성적욕망이 분출되어지듯 그의 패션광고는 사람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었으며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이어져갔다. 켈빈 클라인 광고들이 갖는 의미는 도덕적 관념과 예술의 사이를 넘나들며 시대를 꿰뚫어 보는 마케팅 전략의 숨은 의도와 함께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억압된 성의 욕구 분출이라는 카타르시스의 정신적 치유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11>  
Calvin Klein 향수 광고  
(출처: <http://www.uwtb.egloos.com>)



<그림 12>  
Calvin Klein 음세션 광고  
(출처: <http://www.uwtb.egloos.com>)

## 6. 랄프 로렌 패션의 미적 특성과 치유 양상

### 1) 랄프 로렌의 삶과 패션

패션의 코카콜라로 불리는 너무나 친숙한 브랜드이자<sup>53)</sup> 미국 대중패션의 거장 랄프 로렌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으로서 오늘날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1939년 뉴욕, 브롱스 태생의 랄프 로렌은 화가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색채에 대한 탁월한 감성을

이어받았으며, 아이비리그를 동경하던 시대에 자라 그의 엘리트 지향적인 옷의 분위기는 그가 어렸을 때 동경하던 세계를 표현하였다.<sup>54)</sup>

그의 패션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 전통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미국적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며, 따라서 그의 패션은 유행과 관계없이 항상 미국적이다. 그는 대중들에게 토탈패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의복과 넥타이, 향수, 침대시트에 이르기까지 미국 스타일의 생활양식을 표현하였다.

### 2) 랄프 로렌 패션의 미적 특징

랄프 로렌 패션은 대중문화에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를 적용함으로써 현대 패션의 절충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해냈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가장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메리칸 스타일을 창안한 그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글로벌 패션을 지향한다. 미국동부의 8개 명문대학 엘리트들이 즐겨 착용하는 아이비 룩은 로렌의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전통과 상류계층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여가활동과 골프, 승마 등 품격이 있는 상류 스포츠인 생활을 즐기는 귀족적 취향의 활동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 그의 패션은 품위 있는 미국 스포츠웨어의 대표 브랜드로 명성을 얻었다.

세계 최강의 부국 미국은 실리와 현실에 근거한 기능주의 문화를 토대로 짧은 역사와 깊은 전통이 결합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품격에 의한 귀속적인 패션을 동경하게 된 미국인들에게 로렌의 패션은 아메리칸드림과 귀족적 품격미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문화의 매개체이자 보증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민감한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따르기 보다는 미국 상류사회의 전통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멋과 실용적인 스타

일을 창안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펼쳤으며, 상품기획에서부터 광고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그는 제품 다각화라는 경영 방침을 통해 아침에 향수를 뿌리고 밤에 폴로 이불에서 하루를 정리한다는 미국적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sup>55)</sup>

### 3) 랄프 로렌 패션과 힐링

1·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 국력 중대를 배경으로 세계화의 주도권을 획득했던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귀족문화의 전통 없이 다수의 중산층의 대중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럽 사회의 전통과 권위를 동경하였다.<sup>56)</sup> 점차 신흥 재벌들에 맞서 예절과 도덕의 형식적인 질차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엘리트 의식의 배경이 되는 품위와 전통의 패션인 아이비 룩<sup>57)</sup>은 귀족적 편안함과 엘리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랄프 로렌 제품은 영국 빅토리아조의 패션과 편안한 카우보이 패션 그리고 폴로 경기 선수들의 패션을 복합시킨



<그림 13>  
Ralph Lauren 프레피 룩  
(출처: glamorousluxurypassion.wordpress.com)



<그림 14>  
Ralph Lauren 광고  
(출처: glamorousluxurypassion.wordpress.com)

풍으로 전혀 새롭게 않은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집약해서 귀족적 브랜드로 탄생시켰다.<sup>58)</sup> 랄프 로렌은 전통 영국풍의 분위기에 미국적 스타일의 실용미와 기능미를 가미함으로써 <그림 13>, <그림 14> 처럼 미국의 새로운 전통스타일을 창안해 내었으며, 미국 대중사회의 계층의 구분을 패션에 반영하였다. 이것은 전통을 갈망하는 미국인의 감성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주었으며, 가벼운 미국 대중문화에 예의와 격식을 갖춘 새로운 클래식 코드를 창안 하였다. 프랑스 샤넬이 가난하고 소외된 것들을 통해 계층의 평균화를 패션에 적용시켰다면, 랄프 로렌은 명문 대학의 이미지인 아이비 룩의 유럽적 감성의 귀족 스포츠 폴로게임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미국 대중 패션에 계층을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상류사회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미국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아메리칸 드림인 상류 귀족 사회로의 비전과 짧은 미국 역사에서 오는 전통 문화의 갈망과도 직결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랄프 로렌 패션은 상류계층의 삶을 동경하는 대중들에게 귀족적 품격의 심리적 만족감을 제시함으로써, 랄프 로렌 이미지에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상 디자이너별 패션에 나타난 힐링 아트의 치유 기전을 분류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 IV. 결론

웰빙을 필두로 한 오늘날 힐링문화는 패션, 뷰티를 포함하여 미술치료, 음악, 사진, 요리, 여행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힐링은 심리적 치료의 현실요법에 해당하는 치유방법의 하나로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인간이 겪고 있는 감정상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 문화적 교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시대를

<표 1> 디자이너 패션에 미적특성에 반영된 치유양상

디자이너	미적특성	치유 양상	사진 자료 (치유 전후 및 치유양상)
샤넬	양성성 기능성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르셋 착용에 의한 신체 기형 완화 치유</li> <li>• 성·계층·연령의 평준화를 통한 심리적 대리만족</li> </ul>	
크리스찬 디올	선형성 관능성 전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폼, 밀리터리룩 스타일에서 탈피 라인의 미학 실현을 통한 여성성 회복과 심리적 만족 부여</li> <li>• 기존 가치의 고정관념 파괴</li> </ul>	
조르지오 아르마니	단순성 양성성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성 추구를 통한 성의 평준화</li> <li>• 남녀 엔드로지너스 모드의 실현</li> <li>• 성의 무경계성</li> </ul>	
페라가모	기능성 현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지힐의 고안으로 발의 기형 완화를 통한 착화감 개선</li> </ul>	
캘빈 클라인	기능성 관능성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출증과 관음증의 카타르시스</li> <li>• 억압된 성의 욕구 해소</li> <li>• 성의 무경계성</li> <li>• 기존의 성적 가치 파괴를 통한 성적 자유 부여</li> </ul>	
랄프 로렌	절충성 귀족성 실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의 귀족화</li> <li>-대중 패션의 계층화를 통한 심리적 만족</li> <li>• 다문화적, 다원적 문화의 무경계 현상</li> </ul>	

이끄는 패션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21세기의 사회는 산업과 학문 그리고 성(姓)의 경계가 모호한 탈갈계 현상이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의 치유 양상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이라는 문화적 범주 안에서 세계유명 패션디자이너의 삶과 패션에 반영된 미적 특성을 유추해 냄으로서 패션과 심리적 치유의 절충적 현상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가브리엘 샤넬 패션의 관형의 실루엣과 단순성과 기능성에 입각한 패션스타

일은 여성을 신체적으로 억압했던 신체 기형으로 부터의 치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브리엘 샤넬패션의 미적철학 속에는 성의 평준화와 계층의 평준화, 연령의 평준화를 지향하는 무경계성이 잠재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스타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시대에 우아한 여성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성 회복이라는 심리적 치유의 패러다임 표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인간 무의식 속의 유형인 양성성을 통하여 성의 균형적 조화에 입각한 치유 양상을 제시하였으며,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웨지 힐의 기능성에 바탕을 둔 패션철학을 통하여 여성들의 신체적 고통과 피곤을 감소시켜, 발의 구속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캘빈 클라인은 섹슈얼리티의 광고를 통하여 사회적 관념 파괴라는 새로운 충격을 가함으로써 성의 내재된 욕구의 발화와 육체적 욕구의 만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문화의 고정관념 파괴를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억압된 문화의 탈피로서의 정신적 치유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랄프 로렌은 상류계층의 삶을 동경하는 대중들에게 귀족적 품격의 심리적 만족감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랄프 로렌 패션에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디자이너패션의 미적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유명 패션으로 성공한 디자이너의 패션특성 안에는 인간의 감성과 시대 현상을 대변하는 패션요법의 치유예술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패션이 성공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소에는 그것을 인지하든 아니하든 간에 시의성과 부합된 심리적 치유기전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늘날 패션은 단순한 치장의 측면을 넘어 보완대체요법의 한 분야인 패션요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계속하여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패션의 치유적 연구가 학계와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유승옥, 이은영, 황선진 (2004). 복식문화, 파주: 교문사, p.252.
- 2) Daniel G. Amen, 리사 C. 루스 (2003). 불안과 우울로부터의 힐링, 윤혜정 옮김 (2014). 서울: 원앤원콘텐츠그룹, p.49.
- 3) 최정화, 박명자, 박혜준, 송명건, 오현경, 유효선, 이윤정, 정운선, 정혜원, 최혜선, 홍경희 (2010). 헬스케어의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81.
- 4) 김주덕, 임효정 (2013). 화장테라피, 서울: 광문사, p.19.
- 5) 최정화, 박명자, 박혜준, 송명건, 오현경, 유효선, 이윤정, 정운선, 정혜원, 최혜선, 홍경희. 앞의 책, p.78.
- 6) 석은경, 채금석 (2009). 샤넬스타일이 향장미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4), p.102.
- 7) 송경자 (1999).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듀얼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8)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438.
- 9) 이미숙 (1997). 샤넬 스타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 10)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407.
- 11) 김홍기 (2008). 샤넬 미술관에 가다, 서울: 미술문화, p.152.
- 12) 임성민, 박민여 (2006). 나르시시즘을 통한 코르셋 착용 분석: 18, 19C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6), pp.25-26.
- 13) 최현숙 (1996). 패션과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 양상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동덕여성연구, 1(9), pp.269-278.
- 14) 이순홍, 김서영, 김은란 (2003). 코르셋이 주는 여성 인체 변화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 17(-), p.67.
- 15) 라채숙, 최종명 (2004). 코르셋의 상징성과 현대패션에서의 표현성, 생활과학논문집, 8(2), p.257.
- 16) 임성민, 박민여 (2006). 앞의 책, p.26.
- 17) 변재란 (1997). 여성, 신체, 여성성: 「301·302」와 「코르셋」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8(7), p.114.
- 18) 정연학 (2003). 전족과 신발의 문화적 함의, 생활문화연구, 10(-), p.50.
- 19) Buxbaum, Gerda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p.52.
- 20) 채금석. 앞의 책, pp.439-440.
- 21) 옷색깔로 성격 바꾼다 (2002. 6. 23). 국민일보, 자료 검색일 2012.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108176>
- 22) Molho, Renata (2008).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자 아르마니패션제국, 이승수 옮김 (2008). 서울: 문학수첩, p.43.
- 23) 김의경 (2005). 20세기 후반 이탈리아 패션디자인 연구: 여성복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6.
- 24) 박미선 (2001). 조르지오 아르마니 의상의 내재된 이미지와 장신구의 조화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25)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2005).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 패션인사이트, p.82.

- 26) 김의경. 앞의 책, p.221.
- 27) 조은주 (2005). 대중문화에 나타난 **Metrosexual** 현상과 패션 이미지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 28) 이영미 (2005).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용의 심리적 유형의 비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 29) 송미숙 (2003). 초등학생의 진로 성숙과 성 정체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30)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앞의 책, p.82.
- 31) 최현숙. 앞의 책, pp.269-278.
- 32) 김의경. 앞의 책, p.219.
- 33) 손보경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연구: 죠지오 아르마니와 도나 카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35.
- 34) 전수경 (2001). 조르조 아르마니 패션에 관한 연구: 디자인 특성과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 35) 조미애 (2002). 이것이 명품이다, 서울: 시지락, p.161.
- 36) 위의 책, p.235.
- 37) 위의 책, p.71.
- 38) 조선명, 김희선, 고애란 (2009). 하이힐 착용심리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9), pp.1361-1373.
- 39)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p.147.
- 40) 조미애, 앞의 책, p.102.
- 41) 김용선 (1995). 아메리칸 캐주얼웨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 42) Sennett, Lipovetsky, Gilles. 패션의 제국, 이득재 옮김 (1999). 서울: 문예출판사, p.179.
- 43) Marsh, Lisa. 켈빈 클라인, 박민영 옮김 (2003). 서울: 루비박스, p.265.
- 44) 위의 책, pp.98-101.
- 45) 고영립 (2003). 정신분석학을 활용한 패션 비평 방법론에 관한 연구: 패션광고사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 46) 최명섭 (2003). 관음증을 통한 현대인의 이중적 심리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 47) 박태용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5.
- 48) 위의 책, pp.35-36.
- 49) 천영진 (2004). 인체표현의 **EROTICISM**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 50) 송호진 (2003). 여성사진에서의 심리학적 표현 연구: **At eighteen**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51) 임원철 (2009). 당신의 향수 찾으셨나요?, 파주: 아트박스, p.113.
- 52) 설현옥 (1998). 성 도착증, 대한의사협회지, 464(9), p.969.
- 53)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앞의 책, p.150.
- 54) 김용선, 앞의 책, p.44.
- 55)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위의 책, p.157.
- 56) 이혜원 (2004). **American Classic fashion**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0.
- 57) 위의 책, p.10.
- 58) 김용선. 앞의 책, p.46.



# **A study on Healing Aspect Reflected on Female Adornment Culture**

## **- Focused on World's Famous Designer Fashion -**

**Suk, Eun Kyung**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Fashion reflects the times and heals the times whether we recogniz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women's beauty industry is a solid financial base of the designer fashion industry, and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world's famous designers have settled themselves with the phase of development through compromise between fashion and beauty.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how much fashion culture of women heals the period wholly through the form of new methodology by approaching fashion aesthetics of international famous designers from an angle of healing. Fashion reflects periodical stream by cognizing war, social changes and cultural phenomena rapidly. International famous designers have created fashion with institution and insight which pass the period and plays healing roles by displaying excellent timeliness. As a method of carrying out the purpose of the study, literary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in parallel. Literary research referred to preceding research papers and books on fashion and beauty and used fashion and beauty magazines, serial publications on beauty and the Internet resources as references. As a result of an approach to women's beauty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healing, while a new cultural aspect of human life through compromise and convergence has appeared, it was found that the beauty industry is settling itself as a culture of broad convergence that links the communications between medicine and fashion of the east and the west beyond the category of simple aesthetic decoration, and that fashion designers' aesthetic philosophy with the fame as the world's famous brand included a power of healing pains and evils of the times through fashion.

Key words: Women's fashion culture, designer fashion, healing aspect